

INVITATION

신영자산운용
2019 투자자 포럼 초청

- 펀드운용 보고 및 펀드매니저와의 대화 -

【 모시는 말씀 】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그동안 신영자산운용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올해에도 투자자포럼을 개최하여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주식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펀드매니저와의 대화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 자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시 간 | 14:00~16:30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자세한 위치 등은 참가신청서 확인 가능)

참가신청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syforum2019.c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산운용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2018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10월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교역비중이 큰 한국이 타격을 받으며 2017년 상승분을 반납하고 상승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펀드 성과는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유동성 파티의 종언과 금리인상 등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그간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며 긴축에 나섰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이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국내 경기도 둔화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고용과 소비가 악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돌파하였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빚은 늘어나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한 글로벌 경기,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 성장 저하 등 자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항상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을 때가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준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업들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비추어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시가 배당수익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한 저평가 수준이지만 단지 이 한가지 사실이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경제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선별하여 충분히 싼 가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22여 년간 고수해 온 이른바 “가치주” 투자입니다. 저희는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 자산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불러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실천해 왔고 항상 결과는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2018년의 투자성과가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투자환경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객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좋은 성과를 돌려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신영자산운용은 임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기회를 발견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4회째를 맞는 투자자포럼※ 에서 이러한 저희 펀드 투자전략과 향후 운용계획을 펀드매니저와 함께 짚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회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만큼, 저희 또한 운용을 임함에 있어 한걸음 더 진지한 자세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 신영자산운용 투자자포럼 : 2019년 3월 14일(목)오후2시~코엑스 오디토리움)

저희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허남권**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 운용기간 : 2018.10.27. ~ 2019. 1.26.



목 차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 ▶ 재산현황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 기간(누적) 수익률
 - ▶ 손익현황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5. 비용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 총보수, 비용 비율
6. 투자자산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공지사항>

<참고-펀드 용어 정리>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71941	5등급(낮은위험)
펀드의 종류	혼합채권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7. 7.27.
운용기간	2018.10.27. ~ 2019. 1.26.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외 12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자산의 30% 이내에서 저평가된 우량가치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자산 총액(A)	7,804	7,970	2.12
	부채총액(B)	22	22	1.52
	순자산총액(C=A-B)	7,783	7,948	2.12
	발행 수익증권 총 수(D)	7,869	7,816	-0.68
	기준가격 ^{주)} (E=C/Dx1000)	989.00	1,016.92	2.82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2.82%로 비교지수 2.53% 대비 0.29%pt 상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벤치마크): 종합채권 1-2년 X 63% + KOSPI X 27% + CALL X 10%)

[주식 부문]

지난 10월 글로벌 증시 급락 이후 11월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달러강세는 계속되었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2월은 기존 예상대로 미 기준금리가 0.25%인상됨과 동시에 연준이 19년 금리인상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낮춰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현재의 경기둔화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연준 입장에 실망하며 하락했습니다. 이후 경기 악화와 약세장 진입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자 미국에서부터 금리인상 중단 및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고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무역협상에 따라 중국의 기업보조금과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로 반사수혜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등의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북핵협상과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금융, 성유의복, 제약바이오 등이 부진했으며 IT, 운수장비, 건설, 유틸리티, 증권 등의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펀드는 종목별로 차익실현과 함께 펀더멘털 대비 주가하락 폭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위주로 교체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채권 부문]

11월 채권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지만 미국 금리의 하락세 및 경기 부진 가능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금리는 월초 비농업고용 증가수의 예상치 상회로 3.23%까지 상승하였지만 민주당의 하원장약으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 유가 급락, 파월 연준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미 금리의 하락세에 연동되어 국내 채권시장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12월 미국 채권시장은 경기둔화 가능성, 주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 회피 심리,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리는 이러한 글로벌 채권금리 하락세의 영향을 받으며 연 저점을 뚫고 하락했으며 한은의 2019년 금리동결 가능성을 채권가격에 반영하기 시작, 기준금리와 기타 만기 금리 사이의 스프레드가 2년래 최저수준까지 축소되었습니다. 1월 채권시장은 월초 파월 의장이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인내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발언 이후, 매파적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연준 인사들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의 완전한 Risk on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미국금리의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금리 또한 전월 대비 반등하였고 수익률곡선도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물가, 수출지표 등 경제지표의 부진이 계속되었고 4Q18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으나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사는 연초부터 지속되어 온 좁은 레인지에서의 금리 횡보세를 감안하여 기존의 캐리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이벤트에 대한 가격 반응을 주시하며 추가 전략 실행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이어져온 일방적 채권 강세장이 마무리되고 국내 금리가 바닥을 형성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밴드에서 금리가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황을 고려하여 높은 캐리를 추구하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 뉴스 플로우와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전략 실행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 부문]

2018년 말 2,000p수준에서 끝난 코스피는 1월 한달 만에 2,200p까지 반등했습니다. 미 금리인상 속도 하락에 따른 달러약세 기대감 발생, 그에 따른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인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업종만을 집중 매수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2,200p라 하더라도 업종과 종목별로 온도차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가 곧 가시화될 것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곧 개최되기 때문에 현재의 긍정적인 투자심리는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시장은 무역협상 결과의 합의수준과 정상회담 이후의 변화속도를 가능하고자 할 것이며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길게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강도가 중요할 것이며 금리인상이 멈추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시장은 경기 지표와 기업실적의 개선을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으나 그 다음에는 주요 지표를 확인하면서 가고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펀드는 국내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19년 업종별, 종목별 실적방향성을 다시 분석하여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긴 했지만 종목선택과 매매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꾸준히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저평가된 가치주에 주목하는 투자스타일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배당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친화적으로 변모해 가는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채권 부문]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섯다운,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지표와 임금상승률이 견조하지만 그동안 양호했던 소매판매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빠른 시일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정부의 재정정책과 양호한 소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출과 소비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향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보유이익 확보에 집중하고 국내 금리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내 금리가 바닥을 확인하고 한달 간 좁은 레인지 장세를 유지하였지만, 미국의 정치 불안,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국내 지표 둔화 등 금리 하방압력이 높은 만큼 금리 상승시 조금씩 매수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캐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시장의 추세 전환 여부를 주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2.82	-0.51	-3.12	-4.32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9	-0.17	-1.22	-1.88
비교지수 ^{주)}	2.53	-0.34	-1.90	-2.44

구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2.11	5.83	5.85
(비교지수 대비 성과)	-2.39	-3.16	-5.84
비교지수 ^{주)}	4.50	8.99	11.69

주)비교지수(벤치마크): 종합채권 1-2년 X 63% + KOSPI X 27%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268	22	0	0	0	0	0	0	0	4	-21	-263
당기	211	24	0	0	0	0	0	0	0	5	-21	219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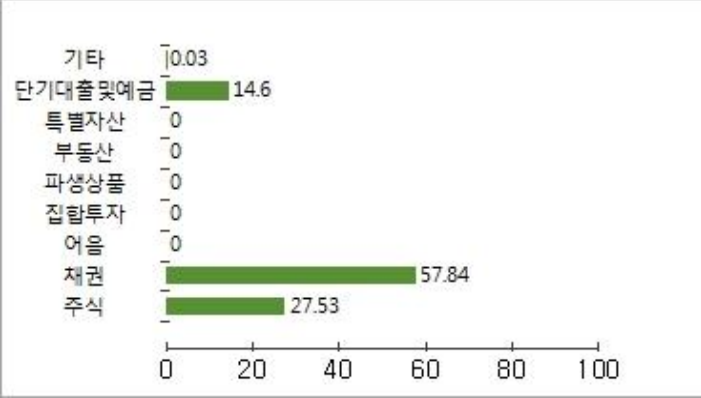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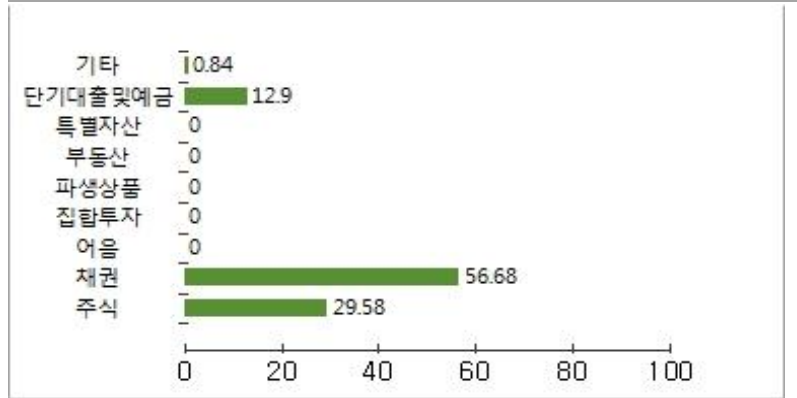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2,358 (29.58)	4,517 (56.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28 (12.90)	67 (0.84)	7,970 (100.00)
합계	2,358	4,517								1,028	67	7,970

* (): 구성비중

전기 자산별 구성비중



당기 자산별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금융업	18.15	6	유통업	7.34
2	전기전자	15.48	7	음식료품	4.35
3	코스닥	13.26	8	서비스업	3.90
4	운수장비	8.94	9	철강및금속	3.60
5	화학	8.24	10	기타	16.74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6,606	296	3.71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현대차	544	70	0.88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현대모비스	307	64	0.80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LG화학	143	53	0.67	대한민국	KRW	화학	
롯데쇼핑	226	44	0.55	대한민국	KRW	유통업	
한국전력	1,210	40	0.50	대한민국	KRW	전기가스업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기재합니다.

▶ 채권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통안02060-1912-02	3,000	3,016	대한민국	KRW	2017. 12. 2.	2019. 12. 2.		N/A	37.84
통안0160-1904-02	1,500	1,501	대한민국	KRW	2017. 4. 2.	2019. 4. 2.		N/A	18.84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단기대출	삼성증권	2019. 1. 25.	700	1.87	2019. 1. 28.	대한민국	KRW
단기대출	신한금융투자	2019. 1. 25.	300	1.87	2019. 1. 28.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출생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67	6,806,302	1	8,100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39	1,666,326	0	0	2110000545
고도희	부책임운용역	1983	3	135,017	0	0	2109001481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2007. 10. 23. ~ 현재	허남권
책임운용역	2017. 11. 17. ~ 현재	심창훈
부책임운용역	2017. 11. 17. ~ 현재	고도희
부책임운용역	2016. 10. 01. ~ 2017. 11. 16.	박민경
부책임운용역	2016. 01. 11. ~ 2017. 11. 16.	심창훈
부책임운용역	2011. 07. 25. ~ 2016. 09. 30.	고도희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자산운용사	6	0.08	6	0.08	
	판매회사	14	0.18	14	0.18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1	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21	0.26	20	0.26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1
		증권거래세	0	0.00	0	0.01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구분	해당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주1)}	중개수수료 비율 ^{주2)}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전기	1.0356	0.0332	1.0356	0.0332
	당기	1.0357	0.0273	1.0357	0.0273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8,645	202	13,138	161	7.03	27.88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

2018. 4.27. ~ 2018. 7.26.	2018. 7.27. ~ 2018.10.26.	2018.10.27. ~ 2019. 1.26.
12.48	4.75	7.03

공지사항

1. 동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의 가입한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채권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하나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외 12개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4.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 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자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징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 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